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4호 [주제 제25663호] 주제 106 (2017)년 6월 3일 (토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강서약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신  
우리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강서약수공장을 현지지도하  
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군인 안정수동지,  
김용수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남포시  
위원회 위원장 강양보동지  
와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  
였다.

예로부터 치료복이 넓고  
그 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사람들 속에서 인기가 대단히  
높은 강서약수를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  
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1973년 3월에  
창립된 강서약수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속  
에 생산량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세상  
에 높은 평판을 얻어온 현대적인 약수생  
산기지로 전변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어오신 우리 인  
민들이 무병장수의 기쁨속에 사회주의  
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늘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4월 강서약수공장에 약수율반용  
자동화 등을 비롯한 사랑의 선물들을  
보내주시는 대해 같은 은정을 배풀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전경과 약수생산공정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시고 백두산절세워인들



인민들에게 위생안전성이  
확고히 담보된 약수를 공급  
해주기 위해 위생통과실을  
잘 꾸려놓고 작업장들마다에  
유리차단벽을 설치하여 생산  
공정의 무균화, 무진화를  
훌륭히 실현하였으며 현대적  
인재 품질 사기를 가지고  
검사까지 깐깐히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였다.

제품전시장에 전시된 약수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  
며 공장에서 생산한 약수를  
마시는 인민들속에서 반영이  
대단하다는데 누구나 좋아하고  
수요가 높은 강서약수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  
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약수터에서 몇소 약수맛도  
보아주시고 우리나라에  
약수가 나오는 곳이 많지만  
강서약수맛이 제일 좋다고  
하시면서 뜻하지 않게 약수  
샘줄기가 끊어졌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력한 연구집단  
을 보내주시어 본래보다  
량도 더 많고 질도 더 좋은

새 약수샘줄기를 찾아주신 사랑의 일화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서약  
수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  
는것은 사회의 모든 재부가 철두철미 인  
민들의 부리증진에 틀려지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산좋고  
물맑은 우리 나라에는 가는 곳마다 약수  
와 온천이 대단히 많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잘利用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2 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강서 약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선군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만세!**

장제7차 대회 경영 관철예로!

장원도정신으로 차격차장의 영웅신화를 창조하



## 1면에서 계속

공장의 현대화, 과학화,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 대체 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풂어주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들이 힘있게 벌필터 대한 문제, 늘어나는 생산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서 강서 랑에 맞게 포장용기문제를 원만히 해결 악수공장이 알고 있는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할 때 대한 문제, 인민들이 마시는 약수를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약수생산을 늘이는 것과 함께 그 질을 더 높일 때 대한 문제,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 나 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혼신적 복무정신을 안고 사람들의 몸에 좋은 이름난 강서 약수를 대대적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투 끊임없이 펼쳐온 강서 약수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관찰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다.

본사정치지도부

데도 늘 깊은 관심을 둘릴 때 대한 문제 등

생산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이

자기들의 일터에 몸소 찾아오시여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현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우대되신 1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현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 각국에서 축전과 축하현지를 보내여왔다. 그들은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우대되신 1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현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 각국에서 축전과 축하현지를 보내여왔다. 그들은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우대되신 1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현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이란이 출람교련 합당 무총비서, 밀파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가나니족민주대회 무총비서, 에질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 보천보의 해불과 더불어 백승의 역사 영원하리

지난 60여년 동안 연 45만 5 580여개 단체에서 2 129만 1 000여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보천보혁명전적지 참관

핵사직인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을 앞두고 수많은 당사자들과 참관자들이 유서깊은 보천

보천보혁명전적지를 찾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소 조직

지휘하신 보천보전투의 의의와

보천보혁명전적지를 찾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 탄생하여 주체의 군사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위용이 힘있

게 표시되는 때에 보천보에 오너

백두산혁명전투에서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왔다. 조선인민은 제국

주의의 노에 가 되지 않을것이라

는 평적의 의지를 담아 출사신

백승의 총성이 지금도 둘러오는

것만 같다고 걱정을 놔놓고있다.

그러면서 보천보의 총성이 오늘

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평도밀에 조선인민을 겐트리는

자는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절

대로 용서치 않는다는것을 알리

는 무적의 주체와, 평적의 로켓

족을 유통해 놓고 있다.

보천보혁명전적지를 찾은 해

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도 조선

과 만주대륙에서 아시아의 제왕

처럼 행세하면 일본제국주의자

를 미혹한 전투강소들과 어려

지침들에서 강사의 해설을 들으

며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전술, 탁월한 굴고술

에 대하여 깊이 새겨가고있다.

구시풀통령전적지를 찾은 해

외동포들과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조국에로

전군께서 압록강을 건너신 일

지 못한 역사의 그날을 들어켜

보며 조국땅에 첫발을 내짚던

선열들의 흥분된 심정에 대해서도 소중히 알아보고있다.

그들은 장군덕에 올라 사령부

자리와 경위 중대지뢰, 조선인민혁명군 제7연대와 제8연대가

대체로 배우고 있는 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전적지를

창조되었는가를 폐부에 새기고

있다.

당사자들과 참관자들은 보천

보천보혁명전적지를 돌아보면서

다종의 친략무기, 주체무기들이 펼

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준희

# 보천보의 화불은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주며 영원히 태오를 것이다

## 역사의 땅에 울린 멸적의 총성 최후승리에로 부른다

어느덧 80년 세월이 흘렀다.  
류수와 같은 세월속에 냉대와 세기는 바뀌어도 이 나라의 천민군은 보천보전투에 대해서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며 다행히, 현장으로 일어나는 주체조선의 투기할 사변들을 맞이 할수록 세월의 염려를 넘어 더욱 세차게 울리는 보천보의 충소리가 들고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역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기립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하찮은 생각을 주는 역사의 뼈 보천보, 그 이를 소중히 불러보며 우리는 먼저 피눈물에 젖었던 과거사를 벗겼다.

예로부터 보천방의 경치는 한족의 그림을 끌어들여 하였다.

풍자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큰장 력과 려수역, 아름다운 숲속을 감돌아 흘러내리는 가련천, 계곡에 구슬 같은 물이 흐른다고 하여 불리우면 목계종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아없는 배상들에게 실습과 고통만을 더해 주었다.

어제 보천방이라. 1930년대 종교에 이르러 조선은 일제의 밭발 밑에서 하나의 철창없는 감옥으로 화하였다.

당시 일제는 우리 민족의 빙밀민족에 방해 운동을开展하여 밀살해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군대와 원병, 강찰망을 강화하는 한편 세상에 보기 드문 악법을 만들어내며 조선사람을 박치는데로 살아가두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들이 한곳에 모이는 것조차 두려워하였으며 애학에서 글을 배우거나 들판에서 공자기장을 하는것조차 모두 「불온 행동」이라고 하면서 해산시키고 하였다.

또한 일제는 『내선일체』, 『동조종군』, 『황국신민회』를 떠들면서 조선민족의 자유와 법을 충돌하게 했으며 원병, 강찰망을 강화하는 한편 세상에 보기 드문 악법을 만들어내며 조선사람을 박치는데로 살아가두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군대와 원병, 강찰망을 강화하는 한편 세상에 보기 드문 악법을 만들어내며 조선사람을 박치는데로 살아가두었다.

한편 민족의 운명을 통탄하며 동문서주하면서 『애국지사』들도 날로 활로제는 일제의 한반도에 걸을 먹고 주지 않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막국도의 처지를 피는들속에 감수해야 했던 조선은 그야말로 한 혹천지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조국의 뿌리인 보천보에서 백두산청년장군이 울린 멸적의 충소리가 누리를 전갈하며 울려졌다.

보천보의 밤하늘에 울린 원우격렬의 충성, 그것은 짓밟힌 겨례의 가슴마다에 민족생의 서왕을 암시해주고

해방전의 불길을 지펴울린 역사적인 장거였다.

백의민족이 일일원주로 기다리던 위대한 사변을 암아오신 민족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

조국전군의 역사적 위업을 위해 그야마서 고되고온 술술의 언덕과 시련의 고비는 파연 그 열미이에나.

백두산청년장군의 자우자우이 승강이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대전을 선포하신 첫 시기부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 확대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일관하게贯彻해 나가시였다. 그리하여 일제에 대한 항일대전에서 추진하고 있음에 투쟁방향으로 전출하여 적들을 죽이면 최원부대가 배제 통곡방에서 적들의 사면과 함께 되었다는 긴급통보가 사방에 걸쳐왔다.

이미한 정황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걸려되어 있는 예에 통계선에서 가까이 올려놓은 보천보를 들어칠 결심을 하시였다.

보천보는 당시 항경남도 갑신군의 면소재지로서 일제는 여기에 경찰관 주거소,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농사 시험장, 우편국, 소방회관 등 족집기 구조물과 랙타기구를 두고 인민들의 반일투쟁을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전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일제가 비밀본전에 쓰비와 같이 보천보는 저들의 『국제계』 『북선개혁』과 『국경경비』의 유풋지였고 대두산에서 경제의 중심지, 물자의 입점장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전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그때를 회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외에 25(1936)년 2월 혁사자인 날호회원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에 진출시키며 두개부대를 겨우 국내에로 확대 확대 대한 전략적방침을 일제에 대한 전략적방침을 전개하고 그 실현을 위한 두쟁을 헌명하게 이끄셨다.

조국에로의 전군,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적 풀이 악을 쓰며 갑갑행한 1936년의 『봉기대토벌』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고비를 헤치며 수많은 전투를 벌여야 했다.

봉기들이 헤친후, 허우한전투, 도원리전투, 리평수전투...

백두산의 설한 풍물은 이겨내며 언론리조차 없이 눈으로 창자를 떨며 한치 한치를 사랑하는 전우들의 피의 대가로 흘려나가야 했던 무송원정의 나날은 또 그 얼마나 간고했건가.

그리고 그 어떤 역사에서도 그 어떤 경 속에서도 도울 늘지 않는 강철의 의지와 불리는 조국애, 혁명전사들에게 대한 한없이 끼운 믿음과 사랑, 신을 품는 유전으로 경찰과 풍물지증을 이어나갔다.

보천보는 적들의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중요군사요충지였고 국경일대에서의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랙탈의 풍물지증을 중지하였다.

보천보를 치면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있던 사람들에게 조국애방의 신심을 알려줄뿐 만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도 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26(1937)년 7월 27일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에 있는 광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군정간부회의를 여시고 보천보전투계획을 의종으로 완성하였다.

비밀이 불 때마다 조국땅의 구수한 흙냄새와 꽃향기가 대원들의 계부로 흘러들었다.

깊은 감동속에 조국의 귀중함을 다시금 빼어내는 것은 광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우뚝한 꽃을 끌어 흐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기다렸다.

비밀이 불 때마다 조국땅의 구수한 흙냄새와 꽃향기가 대원들의 계부로 흘러들었다.

깊은 감동속에 조국의 귀중함을 다시금 빼어내는 것은 광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우뚝한 꽃을 끌어 흐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기다렸다.

그때를 회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드디어 밤 10시, 천천히 전총을 끌어내며 머리위에 높이 드시었다.

『땅!』

어둠이 절제 드리운 보천보의 밤하늘을 헤아려 전투개시를 알리는 백두산청년장군의 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백두산현지에서 흘러내려 급이쳐흐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술적의도에 따라 3개 방면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행렬한 활동이 개시되었다.

그런데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지향방면에서 추진하고 있음에 투쟁방향으로 전출하여 적들을 죽이면 최원군의 구습은 노래소리...

이역만리에서도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조국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의 그윽한 정성에서 심취되어 가슴 베쁘한 황수에 젖어 있는 대원들을 바라보시며 오늘은 저 삼십리금강산이 베껴온 노래를 노래하고 헤엄쳐 헤엄치며 헤엄치고 있다.

보천보는 대원들의 불길을 지르고 헤엄치며 헤엄치고 있다.

온갖 죽족과 단행의 아저인 경찰관주재소에 불에 놓아져내리고 고이 면사시 험, 소방관, 우편국, 교육집이 불소나기며 헤엄친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불의 타격에 헤엄치는 적들은 미명을 지르고 헤엄친다.

이역만리에서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조국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의 그윽한 정성에서 심취되어 가슴 베쁘한 황수에 젖어 있는 대원들을 바라보시며 오늘은 저 삼십리금강산이 베껴온 노래를 노래하고 헤엄쳐 헤엄친다.

보천보는 대원들의 불길을 지르고 헤엄친다.

온갖 죽족과 단행의 아저인 경찰관주재소에 불에 놓아져내리고 고이 면사시 험, 소방관, 우편국, 교육집이 불소나기며 헤엄친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불의 타격에 헤엄친다.

이역만리에서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조국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의 그윽한 정성에서 심취되어 가슴 베쁘한 황수에 젖어 있는 대원들을 바라보시며 오늘은 저 삼십리금강산이 베껴온 노래를 노래하고 헤엄쳐 헤엄친다.

보천보는 대원들의 불길을 지르고 헤엄친다.

온갖 죽족과 단행의 아저인 경찰관주재소에 불에 놓아져내리고 고이 면사시 험, 소방관, 우편국, 교육집이 불소나기며 헤엄친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불의 타격에 헤엄친다.

이역만리에서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조국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의 그윽한 정성에서 심취되어 가슴 베쁘한 황수에 젖어 있는 대원들을 바라보시며 오늘은 저 삼십리금강산이 베껴온 노래를 노래하고 헤엄쳐 헤엄친다.

보천보는 대원들의 불길을 지르고 헤엄친다.

온갖 죽족과 단행의 아저인 경찰관주재소에 불에 놓아져내리고 고이 면사시 험, 소방관, 우편국, 교육집이 불소나기며 헤엄친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불의 타격에 헤엄친다.

이역만리에서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조국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의 그윽한 정성에서 심취되어 가슴 베쁘한 황수에 젖어 있는 대원들을 바라보시며 오늘은 저 삼십리금강산이 베껴온 노래를 노래하고 헤엄쳐 헤엄친다.

보천보는 대원들의 불길을 지르고 헤엄친다.

온갖 죽족과 단행의 아저인 경찰관주재소에 불에 놓아져내리고 고이 면사시 험, 소방관, 우편국, 교육집이 불소나기며 헤엄친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불의 타격에 헤엄친다.

이역만리에서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조국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의 그윽한 정성에서 심취되어 가슴 베쁘한 황수에 젖어 있는 대원들을 바라보시며 오늘은 저 삼십리금강산이 베껴온 노래를 노래하고 헤엄쳐 헤엄친다.

보천보는 대원들의 불길을 지르고 헤엄친다.

온갖 죽족과 단행의 아저인 경찰관주재소에 불에 놓아져내리고 고이 면사시 험, 소방관, 우편국, 교육집이 불소나기며 헤엄친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불의 타격에 헤엄친다.

이역만리에서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조국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의 그윽한 정성에서 심취되어 가슴 베쁘한 황수에 젖어 있는 대원들을 바라보시며 오늘은 저 삼십리금강산이 베껴온 노래를 노래하고 헤엄쳐 헤엄친다.

보천보는 대원들의 불길을 지르고 헤엄친다.

온갖 죽족과 단행의 아저인 경찰관주재소에 불에 놓아져내리고 고이 면사시 험, 소방관, 우편국, 교육집이 불소나기며 헤엄친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불의 타격에 헤엄친다.

이역만리에서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조국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의 그윽한 정성에서 심취되어 가슴 베쁘한 황수에 젖어 있는 대원들을 바라보시며 오늘은 저 삼십리금강산이 베껴온 노래를 노래하고 헤엄쳐 헤엄친다.

보천보는 대원들의 불길을 지르고 헤엄친다.

온갖 죽족과 단행의 아저인 경찰관주재소에 불에 놓아져내리고 고이 면사시 험, 소방관, 우편국, 교육집이 불소나기며 헤엄친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불의 타격에 헤엄친다.

이역만리에서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조국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의 그윽한 정성에서 심취되어 가슴 베쁘한 황수에 젖어 있는 대원들을 바라보시며 오늘은 저 삼십리금강산이 베껴온 노래를 노래하고 헤엄쳐 헤엄친다.

보천보는 대원들의 불길을 지르고 헤엄친다.

온갖 죽족과 단행의 아저인 경찰관주재소에 불에 놓아져내리고 고이 면사시 험, 소방관, 우편국, 교육집이 불소나기며 헤엄친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불의 타격에 헤엄친다.

이역만리에서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조국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의 그윽한 정성에서 심취되어 가슴 베쁘한 황수에 젖어 있는 대원들을 바라보시며 오늘은 저 삼십리금강산이 베껴온 노래를 노래하고 헤엄쳐 헤엄친다.

보천보는 대원들의 불길을 지르고 헤엄친다.

온갖 죽족과 단행의 아저인 경찰관주재소에 불에 놓아져내리고 고이 면사시 험, 소방관, 우편국, 교육집이 불소나기며 헤엄친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불의 타격에 헤엄친다.

# 력사적인 보천보 전투 승리 80돐에 즈음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 시와 노래 모임 진행

보천보 전투 승리 80돐 기념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시와 노래 모임이 2일 중앙동 풍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관계부문, 직방일군, 물류, 통자율, 직방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지금으로부터 80년전 역사적인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조직평화도한 일의 전설적 영웅 이시며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에 대한 다합없는 경모의 정이 장내에 차넘치는 가운데 시와 함께 『장편서사시 〈백두산〉』, 『밀림이 설레인다』로 시작되었다.

남성특창 『영왕의 땅 보천보』, 『성득복은 간찰봉에 유험 아비랑』, 『기악과 노래 『밀림 속의 숭현가』 등의 풍물들에서 춤연자들은 알뜰히 드리를 조국땅 보천보에 승리의 불길을 지펴온 리시에 일제시민지통지에 펴낸 구를 내고 광활한 인민대중을 만일성전에 토끼처럼 불려오기로 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적業을 최종적으로 구하였다.

참가자들은 항일의 혁명만리,

보천보전투 승리 80돐에 즈음 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시랑송모임 『영원히 나오라』와 보천보의 불길이어』가 2일 마두산혁명전적지에서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중앙과 정인남도의 농근농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역할과 함께 혁명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비란정신으로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철의 의지를 가다듬어 하는 전적지에서 참가자들은 격동된 심정을 시와 노래에 담아 토로하였다.

불길 만리를 해치시며 강도 일체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에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천출위인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었다.

출연자들은 보천보에 나오른 승리의 불길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선군승리의 거치로 빛내 이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놓으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 업적을 실화시 『말하라 선군길 이어』, 『성운 5종상 『선군을 노래할 때』, 『성운 5종상 『자랑하세 혁전체육경』』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열렬히 칭송하였다.

장내에 태평한 세련된 평도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빛내여온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우리 인민을 혁명하는 이르는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따라



## 『영원히 나오라 보천보의 불길이여』

###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시랑송모임 진행

하였다.

피어린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가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세계의 은인 이심을 실장길 이길 물려주었다.

출연자들은 남성특창 『영왕의 땅 보천보』 등의 종목들에서 보천보의 불길을 지펴온 우리 인민의 실장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며 조국해방

조선은 살아있고 조선의 정신도 살아있다고 선언하시며 온 민족의 기동력을 얹어주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용을 향유하게 서늘한 척구질은 참가자들의 실금을 뜨겁게 흘려주었다.

출연자들은 남성특창 『영왕의 땅 보천보』 등의 종목들에서 보천보의 불길을 지펴온 우리 인민의 실장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며 조국해방

조선은 살아있고 조선의 정신도 살아있다고 선언하시며 온 민족의 기동력을 얹어주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용을 향유하게 서늘한 척구질은 참가자들의 실금을 뜨겁게 흘려주었다.

이어 결의로운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군계 풍처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한 사상정신재료로 삼고 혁신적인 당체육경기대회 결정권을 위한 전민총동력전쟁에서 농업근로자의 영예로운 분분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경기들이 평양에 예산, 평성, 함흥, 원산 등지에서 벌어지게 된다.

개막식이 2일 해산체육관에서 치러졌다.

여기에는 비상국 광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예산시민의 균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마두산혁명전적지에 있는 구호

불길을 끄는 활동을 펼쳤다.

그들은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영적은 온 나라 청년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새겨져 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정을 표명하였다.

출연 승리의 충성은 대우 이어 영원히 하리』가 울려 퍼지었다.

모임은 활창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우리의 충장우에 평화가 있다』로 끝났다.

## 녀 맹 일 군 들 과 녀 맹 원 들 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연구발표모임 진행

보천보전투 승리 80돐에 즈음

보천보전투의 내용을 감명깊게 이야

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 을 높이 달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일제의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뛰어넘어 뒤틀어 뒤덮은 조국의 밤하늘을 헤엄쳐

경찰관주재소와 면사무소를 비롯한 적통치기관들에 복수의 불명실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

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에게 조

지휘하신 보천보전투의 및나는 불길을 가리키이며 서 불길은 우

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

며 일제와 싸우면 만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은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고 하시면서 20대의 백두산대장 김일성장군님의

영상을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삶

장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준 역사적

인 사건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영적은 온 나라 청년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새겨져 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정을 충직하게 담들어 오신

결의를 표명하였다.

육강국전길구상을 높이 밟고

평시에 현미래온 체육기술을 날

김없이 발휘하여 경기대회가 종

목별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높

이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함께 대하여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기조직과

지도를 과학적으로 하고 철

권원들이 책임질수록 높아 모든 경기들이 평양에 예산, 평성,

함흥, 원산 등지에서 벌어지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제도의

그 바쁜 손에서 가까운 일

날에 우리 나라를 세우고 확고한 결심

할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마두산혁명전적지에 있는 구호

불길을 끄는 활동을 펼쳤다.

그들은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灭의 혁명영적은 온 나라

청년들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또 한천의 백두산장군

이신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며 혁명

전통교양의 최진성기마 펼쳐지

고 백두의 혁명전통이 주체혁명

위업 완성의 만년초식으로 더욱

빛을 뿐리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출연자들은 보천보에서 라오

른 혁명의 해불, 투정의 해불을

영원한 승리의 기지로 추구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조선

대회 경기장을 펼쳐지게 되어

그들은 거제자체 라오는 불

길을 가리키며 서 불길은 우

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

며 일제와 싸우면 만드시 승

리할 수 있는 심대한 군사정

적전략과 함께 조선인민의

혁명전통을 펼쳐지게 되어

그들은 거제자체 라오는 불

길을 가리키며 서 불길은 우

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

며 일제와 싸우면 만드시 승

리할 수 있는 심대한 군사정

적전략과 함께 조선인민의

혁명전통을 펼쳐지게 되어

그들은 거제자체 라오는 불

길을 가리키며 서 불길은 우

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

며 일제와 싸우면 만드시 승

리할 수 있는 심대한 군사정

적전략과 함께 조선인민의

혁명전통을 펼쳐지게 되어

그들은 거제자체 라오는 불

길을 가리키며 서 불길은 우

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

며 일제와 싸우면 만드시 승

리할 수 있는 심대한 군사정

적전략과 함께 조선인민의

혁명전통을 펼쳐지게 되어

그들은 거제자체 라오는 불

길을 가리키며 서 불길은 우

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

며 일제와 싸우면 만드시 승

리할 수 있는 심대한 군사정

적전략과 함께 조선인민의

혁명전통을 펼쳐지게 되어

그들은 거제자체 라오는 불

길을 가리키며 서 불길은 우

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

며 일제와 싸우면 만드시 승

리할 수 있는 심대한 군사정

적전략과 함께 조선인민의



